

## ‘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사업’ 7월 준공

- 연안침식 방지와 해변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정동진 해변에 총 381억원을 투입한 연안정비사업이 7월 5일 준공하였다고 밝혔다.

본 사업의 대상지인 정동진해변은 겨울철 고파랑 내습으로 인한 백사장 침식 및 인근 레일바이크 철로구간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.

이에 따라 해양국토의 유실·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정동진지구를 제2차(2010~2019)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.

2018년 12월 착수한 ‘정동진해변 연안정비사업’은 약 5년 동안 총사업비 381억원을 투입하여 수중방파제 3기, 돌제 220m, 모래 해변복원 8.9만m<sup>3</sup> 등 연안재해 예방사업을 완료하였다.

이번 사업을 통해 침식 중이던 정동진해변의 모래사장이 복원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정주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해안 대표 관광명소인 정동진을 국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해청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해안선 측량 및 각종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동진 해변에서 침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	책임자	과 장	조흥준 (033-520-6251)
		담당	계 장	김연섭 (033-520-6255)
		담당자	주무관	이수빈 (033-520-6256)

## □ 사업목적

-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안전 및 정주권 보장, 배후 시설물 보호,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표 관광명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## □ 사업내용

- 총사업비 : 38,104백만원
- 사업내용 : 수중방파제 3기(310m), 돌제 1기(수중 130m, 수상 90m), 해빈복원 양빈 89,030m<sup>3</sup>, 안전표지시설 7기
- 사업기간 : 2018.12.26. ~ 2024. 7. 5.
- 도급자 : 동부건설(주) 외 2개사 / 건설사업관리자 : (주)대영엔지니어링 외 1개사

## □ 추진경위

- '14. 9. : 제2차 연안정비(변경) 기본계획(2010~2019) 수립
- '17. 4. ~ '18. 3. :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
- '18. 12. : 공사 착공

